삼성 신공장 착공에 소부장도 화답… 정부는 인프라 뒷받침

삼성 온양캠퍼스 신공장 착공식
삼성전자, 6조 팹·40조 장비 투입
12개 기업, 충청권에 23.6조 투자
李 대통령 "정부가 전력·용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주력제품 전시물에 방명록을 작성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신공장 착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온양캠퍼스 신공장 착공식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기존 39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더해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기업의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펼쳐집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총 46조원을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팹(Fab) 신설에 6조원, 첨단 장비에 40조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인허가 소요 시간을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 기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4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충청권에서 8개 투자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호남·영남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고무적인 점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앵커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며 "충청권에서는 당초 계획된 392조원 투자에 더해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따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제조 역량 고도화, 스타트업의 실증 및 사업화 기회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련한 지역 협력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용 회장도 환영사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194개사가 2030년까지 약 18조1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66개 기업이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해야 실제 지역 투자의 의미가 배가된다"며 지방정부에 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모두의 성장',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종부세 갈등설에 與 "당청 엇박자 없다"

"당청 간 정책 기조 차이 없어" 강조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만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당청 간 정책 기조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전날 만찬과 관련해 "주로 예산과 최근 경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크게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초청 만찬에 함께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은 양극화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청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이재용 "온양을 최첨단 HBM 거점으로"

〈삼성전자 회장〉

›› 1면 '충청·호남·영남'서 계속

이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투자의 신속한 집행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담대한 계획이 불과 4개월 만에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지방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인허가 소요 시간을 평소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단축해 기업이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도 충청에서 일하고, 보금자리를 꾸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일반 반도체를 단순 조립·검사하는 공정이 중심이었던 이곳이 앞으로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최첨단 HBM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면 국가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 충청은 물론 호남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李, 아세안·APEC 정상들과 연쇄 회담

16일부터 동남아·중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CSP) 비전'의 주요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핵심 광물,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메콩 국가와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 30주년을 앞둔 '아세안+3'의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취임 후 최초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신용사기)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선전에 도착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19일 오전 시작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제인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을 놓고 회원국 정상들이 논의한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자본시장 저평가 매력 여전"

"기업가치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확대 개혁 추진과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권익 보호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면서도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